

## 부사 ‘也’의 통사적 위치 오류 분석

- <HSK動態作文語料庫>를 基礎로 -

李 貞 淑\*

<目 次>

I. 들어가는 말	2. 부사 ‘也’의 어순 오류유형에 따른 결과와 분석
II. 기존의 관련연구 현황	IV.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원인
III. 오류분석	V. 나오는 말
1. 定性·定量的 오류자료수집과 오류기술(description)	

### I. 들어가는 말

현대 중국어 부사는 어순<sup>1)</sup>과 허사가 중시되는 중국어의 특성상 ‘대외한 어교학’에서 중점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항목이다. 그런데 필자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어순오류를 분석하면서 학습상의 증점이자 난점이 되는 영역이 부사어(부사)이고 그 중에서도 부사 ‘也’와 관련된 오류가 상당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내에서는 손정애(2010)<sup>2)</sup>의 연구에서 문장 성분별 어순오류에서 부사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部 講師

1) 본고에서 ‘어순’의 정의는 구나 문장에서의 단어의 전후 순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하여 문장을 분석할 때는 문장 성분과 문장 성분의 배열 순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저자는 총 1,943개의 한국인의 어순 오류 문장을 대상으로, 오류 발생 부분을

어와 관련된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윤유정(2010)<sup>3)</sup>의 연구에서도 부사 위치와 관련된 오류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중 부사 ‘也’와 관련된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陳小荷(1996)<sup>4)</sup>의 연구에서 부사 ‘也’의 중간 언어 양상을 4가지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는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가운데 3가지가 모두 어순오류와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 盧福波(2004)<sup>5)</sup>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범하는 대다수 ‘也’ 오용이 구조가 복잡한 문장에서 발생하고 이는 ‘也’의 위치가 多變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오류 분석연구결과는 부사 ‘也’와 관련된 현행 교수-학습 방법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특히 문장 내 부사 ‘也’의 사용위치

문장 성분별로 분류하고 통계하여, 주어 11.9%, 목적어 14.6%, 관형어 7.1%, 부사어 44.0%, 보어 7.0% 등의 오류 비율 수치를 얻었다. 다만 부사어를 총당하는 성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가 따로 없이 통계를 낸 수치이기 때문에 개개 부사와 관련된 오류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부사어와 다른 성분들(동사나 형용사, 주어, 부사어 상호)간의 오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손정애, <HSK 작문 답안을 통한 중국어 어순 오류 분석>, 《중국문학》제63집(2010).

- 3) 저자는 총 3,726개의 한국인의 어순 오류 문장을 모두 72개 오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통계 수치를 산출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체 오류 중 부사의 위치와 관련된 오류 비율이 20.96%로 가장 높고, 부사들 중에는 也 19.31%, 就 13.68%, 都 7.16% 순으로 오류 비율이 집계되어, 사용빈도가 높은 상용부사의 오류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유정, <한국인의 중국어 어순 오류 유형에 대한 소고>, 《중국어문학논집》제66호(2010).
- 4) 저자는 북경어언학원의 352만자 규모의 CCL I(中介語語料庫系統)에서 부사 ‘也’를 사용한 3,367개 언어 자료를 분석하여 ‘也’와 관련된 328개 오류 문장을 찾아내어,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오류발생 원인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陳小荷, <跟副詞“也”有關的偏誤分析>, 《世界漢語教學》2期(1996).
- 5) 저자는 술어 성분이 복잡한 문장에서 학습자들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교수 경험에 근거하여 다항부사어구, 보어구, 능원동사구, 연동구, 겹어구, 주위위어구 등 6가지 술어문을 살피고 문장 성분들 사이에 내재하는 긴밀도(近疏)의 차이와 ‘신정보와 구정보’라는 화용방면의 요소가 ‘也’의 사용위치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盧福波, 《對外漢語教學實用語法》,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2004.

와 관련하여 기존의 국내 오류 관련 연구에서는 논의의 쟁점으로 다루어진 바가 거의 없고, 중국에서도 다양한 모국어 배경으로 하는 외국인 학습자 가운데 일부분으로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의 독특한 오류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부사 ‘也’의 교수-학습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인 학습자의 어순 오류 문장을 통하여 부사 ‘也’의 중간 언어 양상을 고찰하고 그 오류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인 학습자의 독특한 오류를 규명함과 동시에 문장 내 부사 ‘也’의 어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현대 중국어 어순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확립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II. 기존의 관련연구 현황

일반적으로 중국어 어순은 ‘고정적’ 혹은 ‘비교적 고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어순이 고정적이라는 것은 문제의 일면이고, 李臨定은 중국어 어순이 비교적 유동적이라 하였고, 范繼淹·徐志敏은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였다.<sup>7)</sup> 그렇다면 부사 ‘也’의 어순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볼 때 어떠한 언어 환경, 즉 어떠한 원인으로 어순변화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6) 제 2언어습득과 관련된 현안 과제를 연구한 H. Douglas Brown은 “중간 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접근은 학습자의 발화와 쓰기, 즉 학습자 언어 (learner language)라고 불리는 것을 연구하는 일이다”라고 언급했으며, 또한 학습자 발화와 쓰기 연구는 주로 학습자 오류에 대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H. Douglas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이흥수 외 공역, (제5판; (주)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0), 276쪽.

7) 남궁양석, 《현대 중국어 어순의 정보구조와 초점》, 한국학술정보, 2008, 13쪽, 재인용.

어순 연구는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어순을 기능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서 구정보와 신정보, 화제, 강조 따위가 어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한 프라그마틱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의사소통 기능’으로 보았다. 당대 언어학의 중점도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람들에 대한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연구 토론으로 바뀌고 있다. 만약 어순 문제를 정태적인 통사적 요인만으로 제한한다면 많은 현상을 명확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sup>8)</sup>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부사 ‘也’의 어순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학습자의 오류 문장을 분석하기에 앞서 부사 ‘也’의 사용목적을 의사소통, 즉 정보 전달에 두고 기능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먼저 盧福波(2004)<sup>9)</sup>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각 성분사이의 내재적인 긴밀도(近疏問題)와 문장의 의미 중점(신정보)이 어디에 놓이는가가 ‘也’의 어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이범열(2010)<sup>10)</sup>에서는 화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초점어인 부사 ‘也’를 첨가하여 신정보(정보적 초점)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신정보가 ‘也’의 어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전용진(2005)<sup>11)</sup>에서는 ‘也’가 전체가 되는 문장에 출현

- 
- 8) 1985년 胡裕樹, 范曉의 《試論語法研究的三個平面》이 발표된 후, 어법분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어순현상을 해석할 때 통사, 의미, 화용 각 요소가 모두 작용과 영향이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학자들이 많다.
- 9) 盧福波는 “也가 나타내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일한 정보는 의사소통 가운데 문장의 의미중점에 해당한다. 즉 화자는 也를 이용하여 구정보와 비교해서 동일한(전체 혹은 일부)정보를 강조하게 되고, 그 정보가 바로 정보초점이 되는 신정보인 것이다. 그래서 也는 문장의 의미중점이 되는 동일항 앞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의 책” 180쪽.
- 10) 이범열은 “초점이란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과 이해를 도모하는 담화 기능적 개념”이고 “화자는 담화목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초점으로 명료하게 전달하고, 이를 청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범열, <현대중국어의 초점 표현방식>, 《중국어문학》제55집, 318-319쪽.
- 11) 전용진은 “也는 통사적인 위치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른 성분을 의미 지향 할

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신정보)만을 지향하고, 나머지 성분은 반드시 전제 문장에서 이미 출현한 구정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는 모두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 즉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화자가 선택하는 구조가 ‘也’자문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화용적인 측면에서 살펴 본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시되고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인 화용론이 언어 체계의 연구 범위 내에 설정되며 의미론, 통사론에 우선한다. 의사소통의 기본은 화자의 표현의도대로 표현방식이 선택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도 어순 구성과 변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 한다<sup>12)</sup>는 견해에 인식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장치이자 의사소통의 출발점이 되는 ‘화제어’를 연구한 기타 논문들도 최대한 참고하고자 한다.

### III. 오류분석

일찍이 Corder(1967)는 오류의 중요성으로 첫째, 교사에게는 학습의 진전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연구자에게는 언어가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셋째, 학습자에게는 그들이 배우고 있는 목표어에

---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也’의 의미지향 제1양상으로, 또 신정보를 지향하는 특성을 ‘也’의 의미지향 제2양상으로 정의했다. 전용진, <중국어의 부정극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5, 37-38쪽.

- 12) 남궁양석은 어순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통사적 요인이 심리적 요인보다 우선이지만, 어순변화를 통한 강조문의 경우는 심리적 어순이 통사적 어순에 앞선다는 견해와 “외국어 학습 시 초보학습 단계에서는 ‘통사적 요인>의미적 요인>화용, 심리적 요인’의 순서로 어순이 정해지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학습이 심화될수록 그와는 반대의 순서로 배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어 문장의 정보 배열 원칙’과 관련해서는 溫鎮林(1998)의 연구를 언급하였는데 대체로 아래의 순서를 따른다고 한다. ① 구 정보가 신정보에 상응하는 원칙; ② 초점은 문미에 위치하고 대비초점이 드러나는 원칙; ③ 동사 뒤에는 하나의 중요한 정보 단위를 배정하는 원칙; ④ 정보 전달의 명확, 간단 원칙. 남궁양석(2008), “앞의 책”, 83쪽, 86쪽 재인용.

대한 이해가 정확한 지의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렇게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학습자 오류에 대한 관심은 Selinker(1972)가 도입한 중간언어(interlanguage)이론과 더불어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언어학계, 특히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수-학습영역에 중간언어이론이 도입된 것은 1983년 魯健驥의 <中介語理論與偏誤分析>이 발표되면서부터였고, 국내 중국어교육에서의 오류분석 연구는 대략 90년대 초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2000년대 이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탄생으로 현재 대부분의 외국어 교육에서 오류분석 자료는 해당 외국어의 교재 편성, 지도 방안, 평가 기준 등을 설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sup>13)</sup>

### 1. 定性·定量的 오류자료 수집과 오류 기술(description)

본고에서 수집된 오류 문장은 北京語言大學의 HSK動態作文語料庫<sup>14)</sup>에 수록된 외국인 응시생들의 작문 답안지의 일부이다. 연구는 먼저 한국인 학습자의 어순오류 문장을 추출하고 그리고 다시 부사 “也”와 관련된 오류 문장만 선별한 후, 그것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각각의 오류 특징과 그 원인을 밝히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HSK動態作文語料庫>에 수록된 어순오류 1980개 중 한국인의 오류는 982개이며 절차에 따라 수집된 오류 문장은 모두 74개<sup>15)</sup>인데, 이들 자료

13) 줄고, <중국 내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학습상의 오류분석 연구 현황>, 《동아인문학》, 2010.

14) <HSK動態作文語料庫>는 모어가 중국어가 아닌 외국인의 HSK고등 작문시험의 답안지 말뭉치로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 학생의 부분적인 작문 시험 답안 원본과 작문 오류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마친 전산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코퍼스 <http://202.112.195.192/hsk/index.asp> 참고.

15) 부사 “也”와 관련된 어순오류 77개 중 오류의 중점이 “也”와 연관되지 않은 것과 불완전한 문장 등 3개를 배제한 오류문장은 74개로 한국인 학습자의 전

는 어순오류 문장 내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부사 “也”를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한 “누락(omission)”이나 반대의 경우인 “첨가(addition)”, 또 다른 부사로 잘못 사용한 “대치(substitution)” 등의 오용 현상은 철저히 배제된 어순(ordering)오류만 나타나는 문장이다. 즉 본고에서는 오류 기술의 가장 일반화된 분류인 누락, 첨가, 대치, 어순 가운데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이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통계된 어순 오류만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오류 분석이 초보 분석이나 단편적인 열거에 그치는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했다.

‘也’와 관련된 교학자료를 살펴보면, 의미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게 ‘동일 부류(相同, 類同)’와 ‘완곡의 어기(委婉語氣)’ 등을 기본 의미<sup>16)</sup>로 보고 있고, 용법상의 특징으로는 다른 단어와의 배합을 통해 상용되는 고정형식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반면 문장 내 사용상의 위치는 비교적 고정적 위치로 인식하여 일반적으로 ‘주어의 뒤, 술어동사의 앞’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 환경에서 ‘也’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요컨대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운용되는 문장은 초급단계에서 구사하는 “我也是韓國人”과 같이 결코 그렇게 단순한 통사구조로만 이루어지지 않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也’의 통사적 위치 오류를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문장을 주어부분과 술어부분으로 구분한 후 다시 주어 부분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와 술어 부분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로 세분하여 각각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체 어순오류에서 7.53%를 차지한다.

- 16) 한국어로는 ‘동일하다, 같다, 마찬가지로이다’ 등으로 해석되는 ‘也’의 기본 의미를 연구한 몇몇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呂叔湘(1980)은 “兩事相同”, 馬真(1982)은 “類同”, 沈開木(1984)는 “異中有同”, 畢永峨(1994)는 “相似性”, 楊易鳴(1988)은 “類同追加性” 등으로 보았다. 그 외 崔永華(1997)는 기존의 ‘서로 같음’의 의미를 “同樣”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부사 ‘也’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也’를 포함한 문장과 전제문에서 같거나 유사한 성분으로 인해 생겨난 의미이고, ‘也’는 “并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2. 부사 ‘也’의 어순오류 유형에 따른 결과와 분석<sup>17)</sup>

## (1) 主語 앞에 다른 成分이 있는 경우

이 유형의 오류 문장은 모두 13개로 부사 ‘也’의 어순오류에서 약 17.57%를 차지하는데 주된 원인은 단문의 문두가 화제, 부사어, 전치빈어 등으로 시작되어서 초급자인 경우에는 주어로 오인하거나 이미 목표어의 규칙을 잘 알고 있는 중급자인 경우에는 한국어 보조사 ‘-도’의 영향으로 인한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보조사 ‘-도’는 ‘동류 제시’를 기본의미로 하는 점과 문장의 여러 성분을 한정할 수 있는 용법 등에서 부사 ‘也’와 대응되지만 문장에서의 사용위치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부사 ‘也’는 한정하는 성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주어의 뒤, 술어의 앞’에 위치하지만 보조사 ‘-도’는 한정하는 성분이 무엇이건 항상 바로 뒤에 쓰일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이와 같은 분포적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 한국인 학습자는 문두에 출현하는 주어 외의 성분에 무의식적으로 부사 ‘也’를 첨가하는 것이다.

그 외 복문의 뒷 절에 다른 관련사 없이 주어만 있는 경우에 부사 ‘也’를 주어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로 잘못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부사 ‘也’의 관련 용법을 확대 적용시킨 오류로 목표어 규칙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현상이다.

17) 지면 제한으로 각 유형별로 비교적 대표적인 예문만 제시한다. 또 부정부사의 수식범위와 관련된 오류문 3개는 다항부사어문의 부사연용 오류범주로 처리하였으며 본고에서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18) 보조사는 체언의 격을 표시하는 격조사와는 달리 뜻을 더해 주는 조사로 여러 격에 두루 쓰인다고 해서 특수조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 예문에서 ‘도’는 ‘철수도 좋은 아이 아이다’에서는 주격의 자리에, ‘선생님이 철수도 사랑하신다’에서는 목적격의 자리에, ‘선생님이 철수도 상을 주셨다’에서는 부사격의 자리에, ‘철수도 가거라’에서는 호격의 자리에 각각 놓여 표시하는 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의미는 ‘역시’로 설정할 수 있다.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93, 103-104쪽.

- ① 可是過了很長時間也{CJX}他的病沒什麼好, 已經沒辦法了, 所以全家決定了幫助爺爺自殺。<sup>19)</sup>  
→ 可是過了很長時間他的病也沒什麼好(轉), 已經沒辦法了, ……。
- ② 因為在韓國也{CJX}“安樂死”是很敏感、引起風波的話題, 所以我對這個問題有所了解。  
→ 因為在韓國“安樂死”也是很敏感、引起風波的話題, 所以我對這個問題有所了解。
- ③ 三年前來北京的時候, 很簡單的一句話也{CJX}我不會說, 但是現在呢?  
→ 三年前來北京的時候, 很簡單的一句話我也不會說, 但是現在呢?
- ④ 這個時候也{CJX}我想“痛了就成熟了”, “時間都把問題解決得了”。  
→ 這個時候我也想“痛了就成熟了”, “時間都把問題解決得了”。
- ⑤ 雖然她的一生如此坎坷, 也{CJX}她是最尊敬的人, 而且給我的影響也極大。  
→ 雖然她的一生如此坎坷, 她也是我最尊敬的人, 而且給我的影響也極大。

## (2) 主語成分의 構造가 複雜한 경우

이 유형의 오류는 수식구로 이루어진 주어나 주편성(周遍性) 주어<sup>20)</sup> 등 단어가 아닌 구 이상의 성분이 주어를 충당할 때 부사 ‘也’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 약 21.62%(16개)를 차지했다. 특히 주어가 “一+量詞”인 수량구를 포함한 명사성구조일 때 많은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는 “一+量詞+也+(명사)+沒/不”<sup>21)</sup> 상용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명사를 생략하고 활용하는 말하기

19) 예문①은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도 그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에 가족은 할아버지의 자살을 돕기로 결정했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듯 주지하다시피 보조사 ‘도’는 문장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성분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 전이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 주편성 주어란 일정한 통사적 형식에 의해 그 총칭적(周遍性)의 의미가 강조되는 주어를 가리키는데 吳中偉에 따르면 주어의 형식에 따라 첫째, 주어가 임지(任指)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문사와 결합한 명사성 성분일 때; 둘째, 주어가 ‘一+量詞’와 결합한 명사성 성분일 때; 셋째, 주어가 중첩된 양사와 결합한 명사성 성분일 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吳中偉, <關聯副詞在周遍性主語之前>, 《漢語學習》, 第3期, 1995.

습관이나 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에서도 “하나(개)도”<sup>22)</sup>와 같이 동일하게 명사를 생략하고 사용 가능한 전이 현상으로 인해 일어난 오류이다. 즉 “전혀(거의) 없다”를 의미하는 “一个/点也沒有”라는 목표어 과잉 일반화와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① 聽說中國也{CJX}古代跟我們一樣重視男孩兒。  
→ 聽說中國古代也跟我們一樣重視男孩兒。
- ② 過了幾天後，有比賽的那天，一個和尚他一點也沒念{CJX}佛經，所以他很怕。  
→ ……，一個和尚他一點佛經也沒念，所以他很怕。
- ③ 一個也沒有{CJX}朋友。  
→ 一個朋友也沒有。
- ④ 以後一點也沒有{CJX}進步，不過自己盡力努力避免面對的事情的話，才有希望，像這樣心理上的準備，誰也幫不了。  
→ 以後一點進步也沒有，……。
- ⑤ 但現在成爲一個生活上的強者，因爲我的面前有目的，無論遇到什麼事情、困難{CJX}什麼也不怕。  
→ ……，無論遇到什麼事情、什麼困難也不怕。

### (3) 다항부사어문인 경우

다항부사어문의 오류는 전체의 약 52.70%(39개)에 달하며 유형도 다양

- 21) 많은 학자들이 부사 ‘也’가 부정문에 자주 사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나 부정의 맥락에서만 출현하는 성분을 일컫는 “부정극어”로 구분되기도 한다. 특히 石毓智는 ‘一+量詞’를 극소량사(極少量詞)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정해진 범주 내에서 가장 작은 양(자연수 가운데 ‘1’)을 부정함으로써 전체를 부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전용진(2002)은 ‘一+量詞+也’구조를 포함한 ‘비한정 성분+也’가 중국어의 부정극어로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전용진, 중국어의 부정극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2.
- 22) “보조사 ‘-도’는 가장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선행어로 제시되면 선행어를 한정하여 그 이상의 것 또는 그 이하의 것들은 당연히 모두 포함됨을 나타내는 극단제시에 사용된다”, 윤인숙, <보조사 -도의 기능과 해당중국어 형태소와의 비교>, 《한국어교육》, 2007.

한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화제성 개사구가 있는 경우가 10.81%(8개), 체사성시간사가 있는 경우가 24.32%(18개), 그리고 다른 부사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17.57%(13개)에 해당된다.

첫 번째, 화제성 개사구는 “在~方面(上)/中/下”, “對~來說” 형태로 쓰여진 것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 개사구는 문두의 위치로 이동하여도 무방하고, 여기사를 이용하여 잠깐의 휴지(pause)를 둘 수도 있으므로 화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화제가 우세한 언어라고 보는데 화제<sup>23)</sup>는 “반드시 한정적인 성분이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반드시 청/화자가 공유하는 정보이고; 이미 활성화된 정보이고; 화자가 의도적으로 청자의 주목을 유도하는 중심이고; 화제와 초점은 상대적이어서 화제는 초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어의 화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 현상, 즉 보조사 ‘-도’의 어순 영향을 받는 한국인 학습자는 쉽게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 ① 還有, 本人對韓語也{CJX}在一定程度上把意思能表達出來。  
→ 還有, 本人在一定程度上對韓語也能把意思表達出來。
- ② 我們也{CJX}在日常生活中常常遇到這樣的情形。  
→ 我們在日常生活中也常常遇到這樣的情形。
- ③ 而且幫助妻子自殺的丈夫也{CJX}對我來說值得同情。  
→ 而且幫助妻子自殺的丈夫對我來說也值得同情。
- ④ 所以討論也{CJX}對三個和尚來說沒有用了。  
→ 所以討論對三個和尚來說也沒有用了。
- ⑤ 隨著人類生活日趨複雜, 人類生活的面貌也{CJX}與過去相比有了很大的變化。  
→ ……, 人類生活的面貌與過去相比也有了很大的變化。

23) 徐列炯, 劉丹青認為“話題必須是有定成分, 而不能是無定或類指的成分”; “話題是已知信息”, “話題是聽說雙方共享的信息”, “話題是已被激活的信息”, “話題是說話人有意引導聽話方注意的中心”, “話題跟焦點相對, 因此話題不能是焦點”. 劉富華, 祝東平, <時間詞的語用特點及其與範圍副詞“都”的語序>, 《世界漢語教學》23卷, 2009, 336쪽.

두 번째, 체사성시간사<sup>24)</sup>는 부사 ‘也’의 앞에 위치하는데 이것 또한 시간사가 화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류 공통의 시간인 절대시간과 발화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시간은 모두 구체적인 언어 환경 속에서 지칭하는 시간범위가 확정적이고 주어진 정보이며 청/화자 쌍방이 공유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화제성을 강하게 띤다.<sup>25)</sup> 그래서 구정보에 속하며 신정보를 이끌어내는 부사 ‘也’의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어의 화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 현상, 즉 보조사 ‘-도’의 영향을 받는 한국인 학습자는 쉽게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 ① 我也{CJX}這段時間總是不能學習，幫助母親，但母親堅持說：……。  
→ 我這段時間也總是不能學習，幫助母親，但母親堅持說：……。
- ② 我也{CJX}過幾年後可能結婚。  
→ 我過幾年後也可能結婚。
- ③ 我也{CJX}以前在韓國聽過這樣的事情。  
→ 我以前在韓國也聽過這樣的事情。
- ④ 我們也{CJX}小時候受過這種待遇，何必留傳給我們的孩子呢？  
→ 我們小時候也受過這種待遇，何必留傳給我們的孩子呢？
- ⑤ 老年人也{CJX}年青的時候一定有過代溝感。  
→ 老年人年青的時候也一定有過代溝感。

세 번째, 다른 부사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사 ‘也’는 다른 부사어 앞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也’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사어들보다 슬어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다항부사어의 일반적인 어

24) 陳小荷는 슬어 앞에 놓이는 시간사는 “체사성 시간사 혹은 시간사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剛才, 以前, 這時候, 那時候, 有時候, ~的時候’와 같이 ‘也’의 앞쪽에 놓이는 것”과 “시간이나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예를 들면: ‘常常, 經常, 時常, 時而’ 등으로 ‘也’의 뒤쪽에 놓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陳小荷, <跟副詞“也”有關的偏誤分析>, 《世界漢語教學》2期, 1996.

25) 劉富華, 祝東平(2009), 앞의 책, 336쪽.

순은 개개의 부사어와 중심어와의 거리감으로 결정되며 중심어와 관계가 가까울수록 중심어에 가깝게 위치한다.<sup>26)</sup>

- ① 學習漢語給我提供的不只是掌握一門外語，也{CJX}同樣地提供了一個靠近優秀文化的機會。  
→ ……，同樣地也提供了一個靠近優秀文化的機會。
- ② 戰爭結束以後，他的父親擺脫不掉失去妻子的悲哀，就 {CJX}不久也去世了。  
→ 戰爭結束以後，他的父親擺脫不掉失去妻子的悲哀，不久也就去世了。
- ③ 隨著社會的發展就 {CJX}每個人的心裏狀態也有所變化。  
→ 隨著社會的發展每個人的心裏狀態也就有所變化。
- ④ 結婚當時我還在念大學，沒辦法幫助母親，但現在已經 {CJX}在臺灣5年的留學也結束了。  
→ 結婚當時我還在念大學，沒辦法幫助母親，但現在在臺灣5年的留學也已經結束了。
- ⑤ 或許上述那位長輩在他年輕時代從他的長輩那裏 {CJX}也聽到類似的感歎，只不過當時社會變化速度比現在慢一些，人們不會感到那麼厲害。  
→ 或許上述那位長輩在他年輕時代也從他的長輩那裏聽到類似的感歎，只不過當時社會變化速度比現在慢一些，人們不會感到那麼厲害。

물론, 이상의 분석이 모든 오류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취지와 언어 환경에 맞는 문장 배열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목할 만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높은 오류비율이 상용비율과 비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사용률은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 외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의 초점, 즉 신정보가 무엇인가에

26) 盧福波는 일반적인 다항부사어의 어순은 “시간,어기→장소→동작자묘사→목적, 근거→방향,노선→대상→동작묘사→중심어”이고, 다항부사어구에서 일반적으로 술어동사와 직접적인 수식 관계에 있는 것은 장소, 동작자묘사, 공간, 동작묘사 등의 부사어인데 왜냐하면 어떠한 동작도 일정한 장소, 방식, 공간, 목적 등과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의 책”, 181쪽.

따라서 동일한 개사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사 ‘也’의 어순이 달라진다.

- ① 我對人們丟臉，也{CJX}人們對我很失望。  
→ ……我對人們丟臉，人們也對我很失望。
- ② 半生半死的狀態下只靠人工呼吸机的病人，醫生也{CJX}對這些病人不抱希望，那麼沒有另外的辦法，……也容納安樂死。  
→ 半生半死的狀態下只靠人工呼吸机的病人，醫生對這些病人也不抱希望，那麼沒有另外的辦法，……也容納安樂死。

#### (4) 主述述語文인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독특한 문형으로 취급되는 주술술어문에서 부사 ‘也’의 오류는 약 6.76%(5개)로 나타났다. ‘也’는 부사로서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 혹은 그 기능에 상응하는 동사성 단어 앞에 위치한다. 그러나 주술술어문의 술어부분의 첫 번째 단어는 명사적인 것이므로 ‘也’는 그 기능의 제한을 받고 술어의 앞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술어를 충당하는 주술구의 동사성 단어 앞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어의 규칙을 모르는 경우와 주술구로 이루어진 술어문을 분석해내지 못하는 경우, 또 주술술어문에 상응하는 한국어 이중술어문에서 보조사 ‘-도’의 위치가 대주어나 소주어에 모두 상용되는 습관에 의한 영향으로 한국인 학습자는 주술술어문의 (대)주어 뒤에 ‘也’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다 쉽게 범할 수 있다.

- ① 當然我的母親、父親也{CJX}心裏難過。  
→ 當然我的母親、父親心裏也難過。
- ② 雖然其他大部分的人也{CJX}對父親影響很大，但我相信比別的人對我父親的影響大。  
→ 雖然其他大部分的人對父親影響也很大，但我相信比別的人對我父親的影響大。
- ③ 那時我弟弟只五歲，所以要媽媽的幫助和照顧，而且三個姐姐也{CJX}年紀不大。  
→ 那時我弟弟只五歲，所以要媽媽的幫助和照顧，而且三個姐姐年紀也不

大。

- ④ 我們國家也{CJX}這樣的事情很多。比如說看起來死了，但是他還呼吸，這樣的我們應該怎麼辦！

→ 我們國家這樣的事情也很多。比如說看起來死了，但是他還呼吸，這樣的我們應該怎麼辦！

그러나 주술술어문의 경우에도 의미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也’는 대주어와 소주어의 사이에 혹은 소주어의 뒤에 위치하기도 한다.

- ⑤ 目前社會科學文明發展得很快，隨之{CJX}心理方面也變化很大。

→ 目前社會科學文明發展得很快，心理方面也隨之變化很大。

→ 目前社會科學文明發展得很快，心理方面隨之變化也很大。

(5) 其他 構造가 複雜한 述語文인 경우<sup>27)</sup>

앞에 상술한 오류유형 외에 기타 복잡한 술어문의 오류로 보어문이 하나 발견되었다.

27) 비록 본고의 오류언어자료에는 연동문이 없으나 盧福波의 연구에서 관련 항목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연동문에서 부사 ‘也’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술어의 앞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동작이 일어난 후 연이어 두 번째 동작이 일어나거나 첫 번째 동작이 두 번째 동작의 수단 혹은 방식을 나타내는 등 연달아 발생하는 두 동작이나 상태는 일반적으로 의미상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화용적 관점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완전한 의미전달의 취지에서 연동문의 술어는 보통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 분리 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술어가 모종의 상황이나 마음상태일 때(즉 두 번째 술어가 형용사나 심리동사로 충당 될 때), ‘也’가 통상적으로 두 번째 술어 앞에 위치한다고 언급했다. 또 동사 뒤에 일반적으로 완성태의 ‘了’나 그에 상응하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 앞 동작의 발생 혹은 완성으로 인해 뒷부분에 모종의 심리상태나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앞뒤가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이고 뒷부분이 의미초점이자 신정보가 된다고 언급했다. 盧福波 “앞의 책”, 186-187쪽.

\* 他听了高興，我也听了高興。

→ 他听了高興，我听了也高興。

\* 我覺得很奇怪，媽媽看完紙條緊張起來，奶奶也看完紙條緊張起來。

→ 我覺得很奇怪，媽媽看完紙條緊張起來，奶奶看完紙條也緊張起來。

① 從此以後，那個壺裏的水再喝{CJX}也不幹了。

→ 從此以後，那個壺裏的水再也喝不幹了。

보어문에서 부사 ‘也’는 일반적으로 술어의 앞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 결과, 수량, 방향, 가능 등을 나타내는 중국어 보어는 술어부분의 의미초점이자 직접적으로 술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술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 화용적 관점에서도 “술보구”자체가 의사소통의 신정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성분에 의해 분리 될 수 없다.

#### IV.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원인

“오류”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모국어의 전이에 의한 오류이다. 학습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가 모국어의 경험에 의존하여 모국어로부터 부정적인 전이 현상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목표어 내부전이에 의한 오류이다.<sup>28)</sup> 학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규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일반화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습 부담을 덜고자 하는 학습자의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학유도에 의한 오류이다. 교사의 그릇된 설명이나 발음 혹은 교재의 그릇된 설명 등에 의존한 학습자가 기계적으로 연습문형을 암기한 결과 다분히 교과서적인 표현을 구사하거나 문제가 되는 규칙을 지나치게 학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훈련전이(transfer of training)에 의한 오

28)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목표어 중 불대칭현상의 영향(effect of targetlanguage asymmetries)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초단계의 중국어 학습자의 표현에서 一个年, 一个天和 같이 양사가 첨가된 오류 문장이 종종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명사와 수사사이에는 반드시 양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인택 외 공저(2005) 《한·중·일 언어학의 이론 및 응용》, 183-184쪽.

류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부사 ‘也’의 어순오류에는 어떠한 주된 원인이 작용했는지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본고에서 대강 세 가지로 간추려 보면 첫째, 매 오류유형마다 언급되었던 ‘보조사 -도’로 인한 부정적 전이이다. 사실 ‘보조사 -도’는 학습자가 구사하는 중국어 문장이 단순구조인 기초단계일 때에는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피수식어-수식어’, ‘주어 뒤 서술어 앞’이라는 중국어 통사구조가 한국어 통사구조에 부합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을 도와주는 긍정적 전이 영향을 준다. 그러나 목표어 문장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보조사 -도’는 한국인 학습자가 어순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 현상은 활용하고 부정적 전이 현상은 방지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시기에 모국어 ‘보조사 -도’와 상이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교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된 오류원인으로는 지나치게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의 전수에만 급급한 전통적인 언어교육에 얽매인 교학방법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사 ‘也’는 화자의 의도 즉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극 활용된다. 그러므로 소위 화제형 언어라 불리는 중국어는 ‘화제-평언’, ‘구정보-신정보’의 보편적인 인지 원리를 적용하는 화용적 이론에 따르면 비단 부사 ‘也’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사적 이론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용적 이론은 아직까지 연구학문의 분야에 머물러 있을 뿐 교학 현장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서 화제문 형식이 차지하는 지위를 연구한 하나의 예로, 申小龍이 현대중국어 문학작품 <井>에 대해서 조사하여 얻은 결과를 보면 화제문이 전체 문장의 49.6%를 차지한다<sup>29)</sup>고 한다. 고로 학자들은 의사소통 이론에 따른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에 대한 연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외국어 교학 방법에 실질적으로 적

29) 남궁양석(2008), “앞의 책”, 97쪽.

용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저서별 부사 내 ‘也’의 분포상황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일종의 교학유도에 의한 오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사의 하위분류는 그 의미에 따라 재분류가 되고 있는데, 부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부사 자체가 나타내는 어법 의미와 부사 사용 시의 화용 의미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볼 때 마땅히 어떤 부사가 어떠한 문맥에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문맥에는 사용될 수 없는지 까지를 모두 살펴야만 그 부사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30)</sup>. 그러나 <표 1>의 상황을 근거하여 볼 때 현재 ‘也’와 관련된 의미가 효과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학습자들의 작문자료에서 찾기 힘든 어기와 관련된 용법은 대부분 화용 방면의 문제로 인식하여 기존의 의미나 형식에 근거하여 하위분류를 논한 교재에서는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습자의 목표어 이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회피 현상에 일조를 할 수도 있다. 어쨌든 교학 현장에서 동일 품사의 내부 분류에 일관성이 없다면 교육과 학습의 효율은 떨어질 것이다.

<표 1> 각 저서별 부사 하위분류 내 ‘也’의 분포상황

現代漢語八百詞 1980	범위	HSK語法等級大綱 1996	빈도
朱德熙 1982	범위, 시간	張誼生 2001	중복, 관련
劉月華 1983	중복·빈도	漢語言專業教學大綱 2002	범위
現代漢語教程 1994	관련	李泉 2004	어기, 관련
盧福波 1996	중복·빈도	漢語虛詞15講 2007	범위, 빈도

30) “所謂研究虛詞的意義，具體說，就是既要研究虛詞本身所表示的語法意義，又要研究虛詞使用的語用意義。”；陸儉明，漢語虛詞研究，《現代漢語語法研究教程》，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5，p.191 참고.

## V. 나오는 말

우리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어순오류 문장 가운데 가장 많은 오류항목으로 조사된 부사 ‘也’의 어순을 살펴보았다. 먼저 오류 문장을 통사 구조에 따라 주어 앞에 다른 성분이 있는 경우; 주어 성분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다항부사어문인 경우; 주술어문인 경우; 기타 구조가 복잡한 서술문인 경우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어가 화제형 언어라는 면에서 ‘화제-평언’, ‘구정보(기지정보)-신정보(미지정보)’의 객관어순을 따르는 것이 인지적으로 자연스러운 원리라는 화용적 이론에 입각하여 부사 ‘也’의 어순은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들 자체의 복잡한 통사구조와 문장 성분들 사이의 의미에 관계하는 내재적인 긴밀도, 그리고 문장의 의미중점, 즉 신정보의 위치 등의 요소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비록 미미하지만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더 많은 선후배 연구자들이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의 중간 언어를 체계화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 &lt; 參考文獻 &gt;

- 김중호, <현대중국어 부사의 문장수식기능에 관하여>, 《중국언어연구》제 2집, 1993.
- 김혜원, <현대 중국어의 부사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남궁양석, 《현대 중국어 어순의 정보구조와 초점》, 한국학술정보, 2008.
-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93개정판.
- 이민우, <현대중국어 부사 ‘也’의 의미와 극성에 관한 연구>, 《중국언어연

- 구》제24집.
- 이범열, <현대중국어의 초점 표현방식>, 《중국어문학》제55집.
- 유선영, <현대한어 범위부사의 분류와 의미지향 연구>, 《중국어문학논집》제32호, 2005.
- 윤유정, <한국인의 중국어 어순 오류 유형에 대한 소고>, 《중국어문학논집》제66호, 2010.
- 윤인숙, <보조사 -도의 기능과 해당중국어 형태소와의 비교>, 《한국어교육》제18호, 2007.
- 손정애, <HSK 작문 답안을 통한 중국어 어순 오류 분석>, 《중국문학》제63집, 2010.
- 전용진, <중국어의 부정극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5.2.
- 한용수, 허세립, <중국어 교학에서의 난점-범위부사>, 《중국인문과학》, 2003.
- 白曉紅, 趙衛, 《漢語虛詞15講》(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7.
- 陳小荷, <跟副詞“也”有關的偏誤分析>, 《世界漢語教學》2期, 1996.
- 胡明揚, 《詞類問題考察續集》(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4.
- 李泉, 從分布上看副詞的再分類, 《語言研究》2期, 2002.
- 劉富華, 祝東平(2009), <時間詞的語用特点及其与範圍副詞“都”的語序>, 《世界漢語教學》23卷, 2009.
- 盧福波, 《對外漢語教學實用語法》(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6.
- 盧福波, <“也”的構句條件及其語用問題>, 《對外漢語教學語法研究》(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4.
- 陸儉明, 《現代漢語語法研究教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呂叔湘, 《漢語語法分析問題》(北京: 商務印書館), 1979.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北京: 商務印書館), 1980.
- 吳中偉, <關聯副詞在周遍性主語之前>, 《漢語學習》3期, 1995.
- 肖奚強, 錢如玉, <現代漢語副詞研究總述>, 《雲南師範大學學報》, 2006.
- 朱德熙, 《語法講義》(北京: 商務印書館), 1982.

- 張誼生, <副詞的連用類別和共現順序>, 《烟台大學學報》2期, 1996.
- 張誼生, 《現代漢語副詞研究》(上海: 學林出版社), 2001.
- 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辦公室, 《高等學校外國留學生漢語言專業教學大綱》(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2.
- 漢語水平考試部, 《漢語水平HSK等級標準与語法等級大綱》(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6.
- 코퍼스(<http://202.112.195.192/hsk/index.asp>)

### <中文提要>

我們一般認為副詞“也”在句子中的位置相對來說是比較固定的, 簡單來講, 它位於“主語之後, 謂語動詞之前”。但學習者們在實際語言環境中想要正確的使用“也”也并非易事。因為在實質交流中所使用的句子絕非僅由如此簡單的語法結構所構成。

對此, 本文以既存的相關研究為基礎, 挑出《HSK動態作文語料庫》中所收錄的韓國漢語學習者們和副詞“也”相關的語序偏誤, 對造成其偏誤的制約因素進行了定性以及定量的分析。結果我們發現並認為語法因素, 即構成文章的每個句子自身的語法結構; 語義因素, 即句子成分之間的內在緊密程度; 以及語用因素, 即“也”字文其新信息的位置等問題都會對“也”的使用產生一定影響。由此, 我們確定它們都是制約“也”在句中所處位置的決定性因素。

亦即, 我們通過研究發現了韓國學習者產生偏誤的原因, 同時也促進了只強調既存靜態語法因素教學的改善。除此之外, 在實際教學過程中因韓語中具有“類同”意義的助詞“-도”而導致的母語否定轉移現象以及現代漢語相關教材中副詞自身的下位分類等也都是不容忽視的問題。

주제어: 副詞 ‘也’, 語序偏誤, 語序決定因素, 新信息, 母語否定轉移, 副詞下位分類

